산업구조 고도화 위해 防産위상 재정립 절실…

– 防産學會 창립 2주년 기념 조찬강연회 개최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창립 2주년을 맞아 9월 14일 캐피탈호텔에서 産·學·硏·官 관련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는 너무늦다 — 경제재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사인 白永勳 한국방산학회 회장은 지금 모든 국민이 21세기를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21세기는 우리의 기회일뿐 노력없이 저절로 우리것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것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필요하며 둘째, 독립국가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셋째, 다른 나라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초일류 국가로서의 우리 모델을 정해 놓고, 이를위해 과거집착을 버리고 새롭게 뜨거운 용광로에 불을 붙이기 위한 정책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위산업육성은 국가가 가져야할 책임이자 의무이며, 방위산업만 단독으로 생각할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일등국으로 가는 마지막 수단임을 명심하고, 방위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연내용은 본지 11월호에 게재예정).

韓·美 지속적인 방산 협력노력 필요

– 韓·美 防産 공동위원회 13차 회의에서

韓·美 방산공동운영위원회 제13차 회의가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H. M. Fish 미국방위준비협회 국제산업담당회장을 비롯한 양국방산업체 대표 및 정부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4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 육·해군 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방산협력정책 발표, 그리고 한·미 방산 자문단 구성문제와 차기 한·미 방산회의에 관한 사항이 토의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美정부 기술이전 정책」에 관한 발표는 그동안 한국측에서 한·미 방산회의 등을 통하여 미국측에게 발표토록 수차 요

구하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측에서 능동적인 조치를 한 획기적 성과이며, 또한 희의시 한국업체의 애로사항이 해당업체 대표로 하여금 미국 정부 해당인사에게 직접 전달되게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부여한 성과가 있었다.

* 주요 토의 의제별 토의결과

• 한·미 방산 자문단 구성문제는 그명칭을 「한·미 방산 협의회」로 하고 업체간 호혜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주안을 두면서 대정부 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차기 한·미 방산회의는 全방산업체를 대상으로 1994년 9·10월경 미국에서 개최.

* 주요질의응답

• 문 : 미국정부가 한국에 판매한 오래된 기술의 제3국판매를 언제까지 통제할 것인가?

• 답 : 현행 수출통제법에는 기한명시 조항이 없음. 그러나 現 행정부 기간중 법개정 가능성이 있음 (明)

모든 國産 군수품 품질평가로 품질향상 모색

- '93 군수품 품질 평가회 열려…

국방품질관리소는 지난 12년간 수행하여 온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토대로 군수품의 수출과 관련, 군수업체의 품질보증능력을 평가분석하여 군수품 품질보증체계를 재정립하고자, 9월 3일 국방연구원 대강당에서 '93군수품 품질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품평회는 품질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육·해·공군은 사용자로서의 품질불만사항, 군수품생산업체는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토의한 후 전시된 군수품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權寧海 국방부장관은 李秀烋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우리 군수품도 질적향상을 위해 정부 관련기관, 수요군, 군수업체 모두가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더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수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품질평가회를 계기로 군수품 품질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은 물론, 품질개선과 국산화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경제 계획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방향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창립1주년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李大遠)는 창립 1주년을 맞아 9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신경제계획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李大遠회장은 협회창립후 1년간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제도발전 및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미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발전과 항공우주산업, 신경제 추진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정책방향, 세계우주산업의 변화와 우리의 육성방향,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등의 주제가 항공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발표, 토론되었다.

국산 경비행기 「창공91」항공기 형식 승인

– 국내최초, 실용화 돌입

우리 나라 최초의 고유모델 경비행기 「창공 91호」가 지난 2일 교통부로부터 항공기 형식승인을 받아 실용화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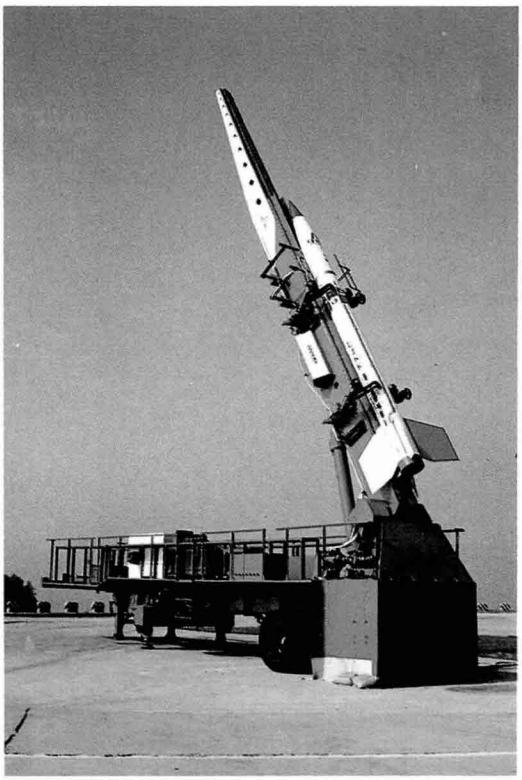
대한항공, 삼선공업, 한국화이버 등 3개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창공 91호」는 91년 11월 시험비행에 성공한후 지난해 7월부터 1년2개월 동안 기체구조강도검증, 제작과정검사, 비행성능검증등 교통부의 엄격한 안전성검증에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도 연간 2백대 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창공 91호」의 대당 가격은 2억원 정도이며 동체길이 7.7m, 폭 10.2m, 무게 780kg, 최고비행속도 시속 242km로 서울에서 일본 도쿄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할수 있고 조종사훈련, 공중정찰, 인명구조 화물수송, 레져스포츠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5인승 단발 프로펠러기이다. *

우리로켓 연구능력과 수준 국제적으로 인정
- 「과학2호」발사 성공

국산 과학관측로켓 「과학 2호」가 9월 1일 오전 10시 34분 충남 서해안 안흥시험장에서 항공우주연구소 류장수(柳長壽) 박사팀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전체길이 6.72m, 무게 1.25t, 직경 42cm의 1단형인 「과학 2호」는 발사고각 69.3°, 발사방위각 188.2°로 서해안 상공으로 쏘아 올려져, 48 km 고도에 도달하였으며, 약 3분 33초 동안 비행후 수평거리로 101,3km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였다. 과학 2호는 비행하는 동안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분포를 관측하는 과학실험을 하였으며, 로켓 자체의 성능 시험을 위해 로켓 각부분의 온도, 응력, 압력 그리고 가속도등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지상스테이션에 원격 송신하였다. 지난 6월 성능을 축소한 과학 1호의 예비시험발사에 이어 이번 발사는 모든 성능을 100% 발휘한 본시험발사이다.

「과학 2호」의 성공적 발사로 1단형 과학로켓의 국산화 연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연구진의 연구능력과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길이 10.3m, 전체중량 2,000kg, 최고 도달고도 200km 이상인 2단형 과학관측로켓의 개발을 착수할 계획이다. *